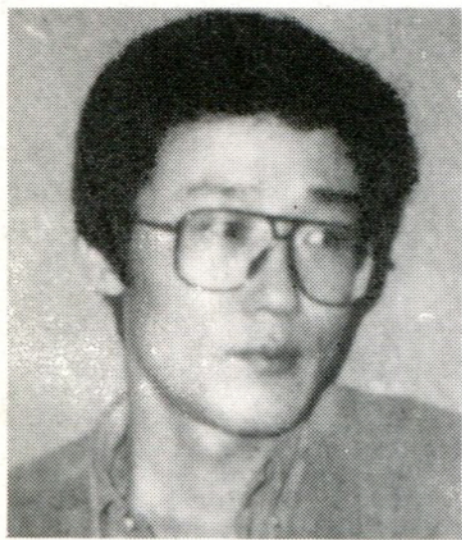


비틀 거리며

달리는 사람들



연출 / 김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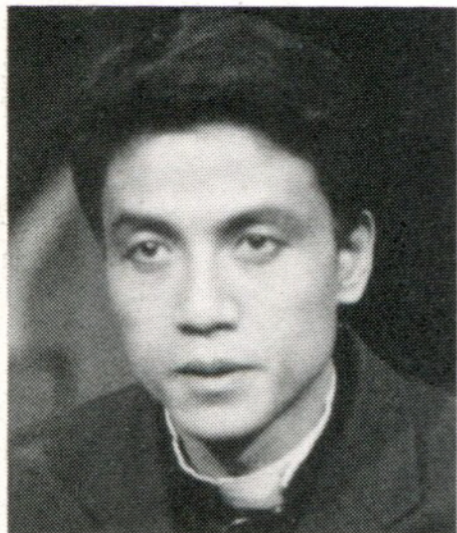
바로 서지도 못한채 그저 끊임없이 달리려 고만 하는...

개인적 사랑의 선택과 종교적 사랑과의 사이를 뛰어 넘지 못하는 신부. 신과 종교를 인간의 의미에서 이해하려는 수녀.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갈등. 종교를 율법과 원칙만의 것으로 믿고 있는 가정부 이들의 이야기를 섹스 스캔들의 관점으로 파고드는 또 다른 사람들... 바로 서지도 못한 채 그저 끊임 없이 달리려고만 하는 무대 위의 사람들, 무대 밖의 사람들

오랜만의 외출,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는데...
왜 이리 모든 것이 더딜까. 오늘 따라 이 머리속은 뭔가?
또 이 얼굴은, 참! 여드름이 돋긴 지난 나인데 이게 도대체,
아! 신경성?
늘 불편하기만 했던 그 속앓이?
8년! 세월에 비하면 적은 횟수의 외출은 아닌데 늘상 이놈의 외출은 신경을 쓰이게 한다.
아! 4분전.
도대체 또 이 옷들은 다 어떻게 된건가.
뭔가 그럴듯 한것이 있을거라고 적어도 우리가 외출을 할 때
만은 누구 못지 않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나마 어깨에 힘을 주어 봤는데 빌어 먹을 이놈의
옷장속은 어떻게 누더기들로만 배를 채우고 있나?

8년 세월을 이끌어 오신 성규님께 용서를 구한다.
또한 그리 미답지 못한 사람에게 별 불만 없이
劇團的, 개인적 신용과 권위를 맡겨준 우리 부두의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 또 우리자신을 속이는 이 변명, 이 억지 위안, 위선
“그래 만나는 순간만이라도 만나지는 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않겠어”

C·A·S·T



신부 / 박지일



수녀 / 변미선



센디그 / 김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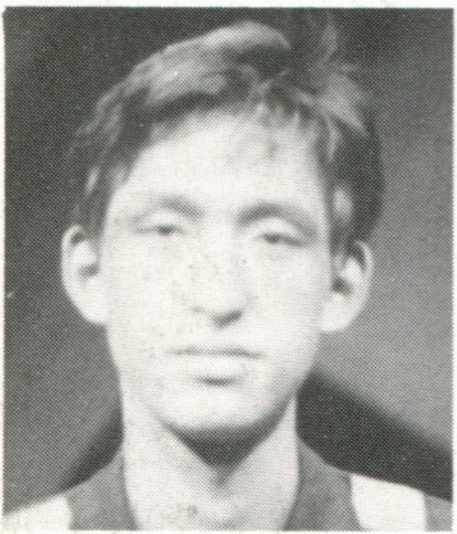
변호사 / 김경수



검사 / 박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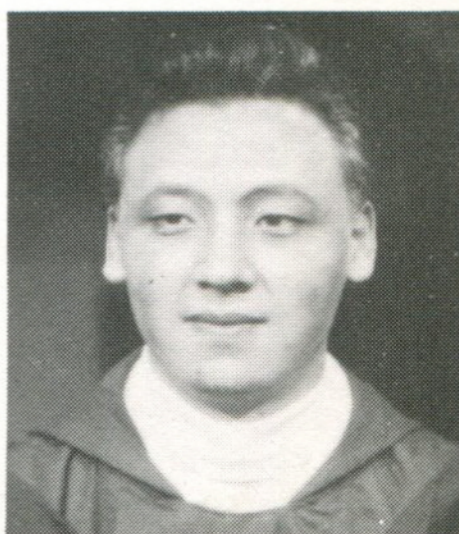
에르나 / 양경희



형무관 / 박병철



루이스 / 김혜영



비서관 / 장하근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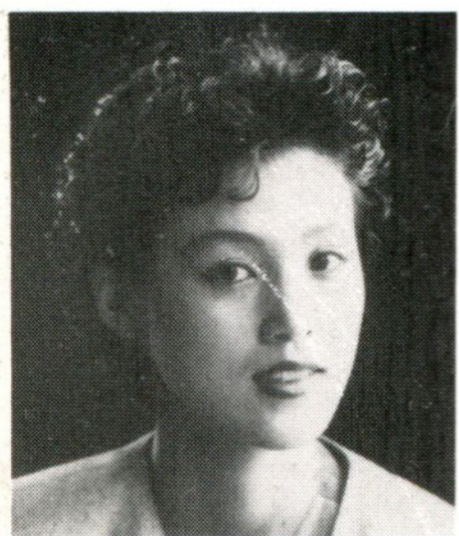
제작 / 조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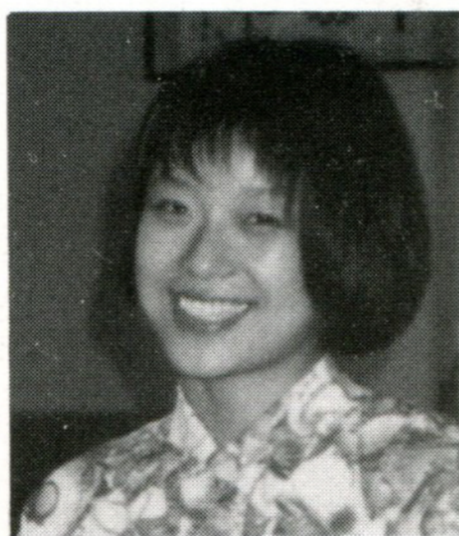
기획 / 김홍근



무감 / 권오진



진행 / 김보영



의상 / 진윤희



음향 / 우명희



작·품·줄·거·리

이 극은 리바도 신부의 심리상황을 통해 무대 위에서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재판상황이 자연스럽게 교차되면서 사건의 핵심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식을 추이하고 있다.

미시간주 소론이라는 작은 마을에 4년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공판이 열리면서 世間的 關心을 끌게 된다. 왜냐 하면 살인자로 피고석에 앉은 사람은 신부이며 살해된 사람은 수녀이기 때문이다.

9년째 소론마을에 교구를 주관하고 있는 리바도 신부는 자신의 신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열성적으로 교구에 매달려 일을 하는 젊은 신부이다. 이런 그가 함께 일하는 두 명의 수녀가 병이 나자 교황청에 새로운 수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새로운 수녀로 임명되어 소론마을에 온

리타수녀는 맑고 명랑한 라일락 같은 아가씨로 그녀의 스스럼없는 믿음에 신부의 흔들리던 신념이 점차 붕괴되어가고 그와 동시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의 갈등으로 신부는 괴로워 한다. 마침내 신부는 소론마을을 떠날 것을 결심하게 되고 이러한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려할 즈음 마을에 산불이 일어나 신부는 화상을 입게 된다.

신부의 화상소식을 듣고 달려온 리타수녀와 단 둘이 있게된 신부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이내 神의 시험 대에서 패배한 자신의 믿음에 분노하면서 수녀의 목을 죄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등 뒤에 남긴 채 신부는 마을을 떠나고 1년뒤 리타수녀의 살인 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축
공 연

대우중공업주식회사 대우에어뱅크

소 장 김 윤 규

- 공 장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91-1
 - 대리점 :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729-9
- TEL. (051) 553-9011 (대표)
FAX. (051) 553-9013